

정헌율 익산시장, 식품기업 유치 선봉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방향 있는 '씨엘월드' 방문 IR 활동 전개

정헌율 익산시장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을 앞두고 식품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유치활동의 선봉에 나섰다.

19일 정 시장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방향 있는 대전의 식품기업 (주)씨엘월드를 방문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조건과 정부차원의 각종 정책적 지원에 대한 IR활동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올해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

가식품단지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 대표적인 식품산업단지로 도약의 해가 될 것이며 이에 익산시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사업의 최적인프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만 있는 특별한 혜택, 체계적인 기업지원시스템 등으로 입주기업에 최고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며 투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씨엘월드 이수민 대표는 "당사는 커피전문 식품기업으로서

향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업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정 시장의 행정에 깊이 신뢰하고 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투자를 적극 검토하여 조만간 분양계약과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주)씨엘월드는 2015년에 설립한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으로 친환경 유기농 원료를 이용한 유기농 커피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수출

물량 증가 추세에 따라 급격한 성장이 기대되는 식품전문기업이다.

한편,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232㎡(70만평)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7년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지역기업 하임을 비롯해 삼보관지·순수분 등 국내외 31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선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BTC를 시작으로 4개 기업이 착공하여 오는 5월부터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은파호수공원' 환경정비 총력

이달 한달 안전·질서유지 직원 근무조 구성 운영

군산시는 봄철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해 시설물 점검 등 본격적인 환경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기준 무인계측기 집계 결과 하루 평균 평균 6,000여 명, 주말 1만8,000여 명이 은파호수공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봄철 빗길 개화 시기인 이달 한달간 은파호수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주말 구분 없이 직원 근무조를 구성해 집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받다리 야외무대 지붕공사 및 무대 도색 ▲음악분수 안전점검 ▲은파 인라인스케이트장~제1주차장 구간 도로 포장을 완료했으며, 향후 ▲은파 수변 산책로 개설 ▲관광안내관 4개소 교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받다리 조명 시설, 음악분수 수와 바닥분수 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이는 5월부터 출시 예정인 '1박2일 시간여행 시티투어' 코스인 은파호수공원 야경을 찾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은파호수공원은 군산 시민은 물론 도보 여행객 등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힐링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농기, 종자소독·육묘 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강한 묘를 기를 수 있도록 18일 육묘장 관리자와 희망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종자소독 및 육묘요령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6월까지 중점지도에 나선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발아 현상에 따른 올바른 종자소독방법 및 육묘 실패사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농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카다리병 발생이 급감하였기 때문에 종자소독 및 약제혼용침지소독(종자소독 전문약제를 희석하여 불 온도 30~32℃에서 48시간 담가 놓는 소독법)만으로도 카다리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특히 발아율에 영향을 미치는 온탕소독은 친환경단지를 제외하고 과감히 생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선정

5년간 약 200억원 지원받아... 사회 맞춤형 특화 인력 양성 등 취업률 높여

군산대학교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최대 지원사업인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이하 LINC+)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LINC+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에 따라 추진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확대 및 중소기업 혁신 지원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대학교는 5년간 약 2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대학교는 지난 2012년부터 산학

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매우 우수하게 수행하였고, 이번 LINC+사업에서는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 양성과 쌍방향 산학협력 체제 구축,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혁신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군산대는 향후 5년간 진행될 LINC+사업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산학협력 사업의 추진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재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률 역량을 개선하고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 교육을 통해 사회 맞춤형 특화 인력을 양성

하는 등 취업률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LINC+사업이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을 지역 산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자체의 지원(전라북도, 군산시 등), 가족회사의 공동참여(660개), 군산지역 산학연관 협의체, 지역의 LINC+ 비참여대학(호원대, 군장대 등) 및 군산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대학의 연구지원, 교수, 7개 단과대학 39개 학과가 어우러져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산학협력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 경쟁력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군산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군산시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스마트폰 기기 사용문화 조성 마련에 나섰다.

시는 18일 관내 회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개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전북스마트원센터와 협력하여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스마트폰 이용시간 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게 해 어린이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군산=장현 기자

라승용 전 농진청 차장, 익산 명예농업시장 위촉

정헌율 익산시장은 19일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 차장을 명예농업시장으로 위촉하고, 박철용 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총괄본부장, 김창수 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상무, 황민길 군장대학교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박사 4명을 각각 농업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 제안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농업인 및 농업단체, 농업법인 등과의 농업현장에서 소통하며, 중앙부처 등의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

정책자문단은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팜 등의 과학영농 지원 및 농업인을 위한 농협과의 상생협력 방안

강구,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익산시는 명예농업시장단(명예농업시장 및 정책자문단)과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포럼, 농업기관 방문으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이 있어 농업발전으로 익산시 재도약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며 "익산시가 대한민국 농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라승용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 농업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모현동 밀밭찬 지원 시작

익산시 모현동 희망동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주제로 밀밭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3월 오례시피 모현점(반찬전문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위원과 통장 등 10여명이 복지사각지대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12명을 방문하여 밀밭찬을 전달하며 말벗과 건강여부도 살피었다.

'안녕하세요' 밀밭찬 지원사업은 질병이나 장애로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그간 해오던 목거노인 안부확인 사업과 연계하여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작하였으며 12월까지 매주 1회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1차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 접수

군산시, 20일~내달 10일까지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올해 마무리되는 도시재생선도사업 이후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2017년 1차 도시재생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을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 중 총 34건에 대한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하여 1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노인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냈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일반공모 ▲기획공모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1억원 규모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당 최대 500만원(자비 1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공모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사업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기획공모는 거주지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주민모임을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군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받고, 최종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7월 말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오는 26일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도시재생 도우미'를 구성해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 상담, 기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